

Alain Supiot 교수의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 및 ILO의 미래」에 대한 토론문

사회적 정의의 재구성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넘어

은수미 (성남시장, 사회학 박사)

2019년은 ILO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공화국 탄생 100주년이다. 참혹한 전쟁을 이겨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한 ILO의 정신과 행동에 힘입은 바 크다. ‘모든 인간은 인종·신앙·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회정의가 이후 1948년 지구적 차원의 인권선언의 기초가 된 것은 되돌아보아도 감동적이다. 하지만 2019년은 ILO의 향후 100년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공화국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는 여기서 접어두고, ILO 기본원칙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와 사회정의 선언이 향후 100년에도 유효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가를 묻는 것에 집중하겠다.

알랭 쉬피오 교수가 지적했듯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은 ‘사회정의의 문제를 종속 노동시간과 돈의 수량적 교환의 문제로 축소’하는 취약점이 있다. 즉 이 모델은 경기변동이나 기업 변화에 따라 사람이, 의류나 식료품처럼 팔리거나 재고로 쌓이는 위험을 완화했다. 완전고용과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의 고통이나 빈곤의 위협도 줄였다. 하지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알랭 쉬피오 교수의 기조강연에 대한 필자의 토론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만 나치와 스탈린이 시작하고 포드주의 모델이 완성한 것, 사람을 ‘인적자본’으로 간주하고 생산성으로 계량하며 우열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비유하자면 조던 필 감독의 영화 『어스』에서처럼, 모든 노동자에게는 도플갱어인 복제인간, 즉 인적자본이 존재한다. 나에게도 나를 꼭 닮은 인적자본이 있고 그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알 수 없다. 정리하고 시기가 되면 나는 인적자본이 된다. 입시경쟁이나 취업시장에서도 나는 인적자본이 된다. 모습이 똑같아 누가 복제인간인 레드이고 누가 사람인 애들레이드인지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레이드가 사실은 복제인간인 레드였다. 그것이 현실이다.

쉬피오 교수는 사회정의 모델의 이와 같은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연대의 원칙, 경제 민주화의 원칙, 사회생태적 원칙을 강조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칙의 구현을 위해 재판소를 창설하여 ILO가 제3자 보증인의 지위를 맡아야 한다고 말한다. 동의한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원칙의 보완일 뿐 기존 모델의 취약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악의 평범성’ 테제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사람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생명, 세계성,¹⁾ 다원성이 필요하며 그 각각의 고유한 활동양식으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산의 자동화 과정과 같은 포드주의적 모델이나 노동의 절대화가 작업과 행위의 고유성을 없애고 그것을 노동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다. ILO의 기본원칙 역시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의 ‘삶의 총체성’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아닐까.

쉬피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작업이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노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소한 동시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질문해보자. 얼마 전 ‘미스 트롯’이라는 예능이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출연하여 우리를 감동시킨 사람들의 행위,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달고 응원한 사람들의 행위는 노동인가 아닌가? 노동이 아니라면 이 행위는 세상을 바꾸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까?

1) 직업세계 혹은 세계관 등의 의미를 갖는 세계성.

노동의 절대화로 인해, 노동조직이 작업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는 관심이 적고 인권부재나 사회정의 약화 현상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독재나 전쟁(1, 2차 세계 대전)이 인권부재나 사회정의 약화의 극단적 양상이었다면 현재에는 그것이 혐오와 가학, 갑질에 기초한 타인의 배제로 구현되고 심각할 경우 테러로 이어진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막말과 혐오표현은 도를 넘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일부 대기업의 갑질이나 가학 역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혐오와 갑질이 전 국민에게로 퍼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모 지역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임대주택 때려 박아 난민촌을 만들거냐'. 이 내용이 게시판과 온라인으로 퍼지자, 집값하락 걱정은 이해하나 청년과 임대주택과 난민을 모두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커졌다.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혐오²⁾와 갑질을 부추기는 사이버 폭력(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등) 역시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조사결과(2017년)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전 국민의 26.0%)했고 피해자의 반 정도가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며 피해자들은 종종 자살충동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자살한다.³⁾

이처럼 인권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이미 하루 평균 6명이 산재로 죽고 34명이 자살하며,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80명의 여성이 성희롱 및 성폭력에 고통받는 나라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내 이웃을 사람이 아닌 놀이나 놀림감, 놀이상품, 즉 인적자본으로 대하는 행위가 퍼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노동조직이 온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할까?

물론 쉬피오 교수는 파업이나 노사정 사회적 합의 등,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LO도, 결핍과의 투쟁이 '노동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3) 2015년 연구결과(<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95740.php?>)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우울증, 열등감, 행동장애, 약물중독이나 자해행위, 자살충동을 낳는다.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행위와 권력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의 행위나 행위 영역은 갑질과 가학, 심지어 테러까지 벌어지는 정치사회적 행위 영역, 노동자들 비노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플랫폼에서의 행위는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기업의 주요 구성원이며 기업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한다. 총사용자와 총노동자로 확대한다 해도 그것은 확장된 기업이며, 문제가 벌어지고 전투가 이뤄지는 공공적 시민적 정치적 영역의 일부일 뿐이다.

직장 내 갑질이나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마저 '공공적·시민적 영역이 폭력적인 언어의 '전투지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시민으로서 발언하고 행동하다가 언어적 공격이나 그보다 더 나쁜 일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⁴⁾가는 영역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⁵⁾은 과거 미국의 매카시즘이나 한국의 빨갱이 낙인과도 다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현장의 사람들이 사용자나 노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동시에 낯선 이를 환대하여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용자나 노동자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주요 영역 역시 기업이나 작업공간이 아니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과 같은 노동이슈일지라도 행위 영역이나 플랫폼,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하여 노사관계로 한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파머는 “현대사회에서 public의 본래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단어는 ‘핍(pub)’”이라면서 “영국의 핍은 언제나 완벽한 공동체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곳을 드나들다 보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팔에 안긴 아기, 중년의 가장, 퇴근하여 집으로 향하는 남녀, 오래 전에 은퇴한 노인, 평생 알고 지내는 이웃, 지나가는 길에 들른 이방인... 핍은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종류의 멋지고 좋은 장소다.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기 때문이다”⁶⁾라고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은 공간이 혐오와 갑질과 테러로 위협받고 있거나 전투지대로 바뀌었는데도, ILO의 기본원칙은 작업장 혹은 기업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2011)』, 글항아리.

5) Ibid.

6) Ibid.

또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생산성을 강조한다. ‘세계의 생산 자원들을 더욱 완전하게,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행위에 의해, 특히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촉진하고’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쉬피오 교수도 그 사실을 지적하며 보완을 주장한다. 보완한다 해도 결국 사회정의는 생산성의 하위 변수이지 않은가?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넘을 수 있는가조차 불확실한 사회이다. 기존의 ILO 기본원칙 준수도 쉽지 않은데 전투지대가 너무 넓어졌거나 이미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신과 원칙만이라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도 충분히 버겁다. 하지만 인권과 사회정의가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절벽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절벽 앞에 선 아이들도 결국 건너야 하는 간절함으로 길을 발견하지 않던가.

게다가 이것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현상이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지난 5월 27일 CNN과 단독인터뷰를 하면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유럽이 (난민을 배척했던) 과거의 망령과 대면해야 한다면서 극우세력을 암흑세력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이다.⁷⁾

필자에게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정의의 재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다.

쉬피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영리 영역의 노동과 비영리 영역의 행위를 교차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출권의 인정을 말한다. 이것은 스티글러가 말한 ‘기여경제’,⁸⁾ 필자가 주장하는 기여소득 개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사람에게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에 따른 소득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아동 등 미성년은 존재 그자체가 사회적 기여라는 점에서 아동수당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형태로 기여를 인정하면 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직장을 다니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는 임금의 형태로, 자원봉사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기여했다면 그에 적절한 형태로 기여의 가치를 인정하고 1인 평생 1계좌를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계좌는 법률로 보장된 평생 인출권이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은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

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58708/>

8) 베르나르 스티글러·아리엘 키루(2018), 『고용은 끝났다, 일이어 오라!』, 문학과 지성사.

적 기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기존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노동만이 아니라 작업이나 행위까지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쉬피오 교수가 언급한 기본원칙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 다만 이때 노동, 작업, 행위와 상호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노동 지상주의 혹은 생산성에의 종속문제는 이제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족한 토론을 이것으로 마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남시에서는 노동인권조례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의 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강성태 교수, 박제성 박사 등의 도움으로 다섯 번의 토론회를 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KLI**